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83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

시대를 초월한 센간엔의 국제성

2. 지사 관련 새소식

베트남 in 아마미 페어에 참석하였습니다(11 월 11 일)

3.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가고시마현 다루미즈시 다루미즈 센본 이초엔

4. 가고시마 특산품 정보

2023 가고시마 신(新) 특산품 콩쿠르 입상 상품 결정!

●시대를 초월한 센간엔의 국제성●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스노든 요제프(영국 출신)

가고시마시 서북부에는 시마즈가의 별장인 센간엔(仙巖園)이 있습니다. 만지 원년(1658)에 지어진 센간엔은 지난 350년간 사쿠라지마 아래에 자리하며 지금도 여전한 가고시마 현민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사쿠라지마를 배경으로 하는 센간엔

센간엔은 시마즈가의 별장이면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한편, 수백 년 전에도 이미 국제적인 거점이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이 사실을 들으면 놀랄 사람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센간엔은 세계를 상대로 가고시마(당시의 사쓰마번)뿐만 아니라 일본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마즈가의 저택 고덴(御殿)과 정원을 견학하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테마는 역사 여행으로, 저의 여행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가고시마 세계문화유산 오리엔테이션 센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 오픈한 전시실은 일본 근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센간엔과 구 슈세이칸 기계 공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반사로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시실에는 정밀한 복원 모형이 있었고, 가고시마 세계문화유산 오리엔테이션 센터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당시의 반사로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1857년에 지어진 반사로는 나라를 지키는 대포를 만드는 곳이자, 국제적인 융합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기술서와 사쓰마인의 근면성이 융합된 반사로의 풍화를 겪은 돌은 산업적인 화석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국제 교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스즈몬

물론 이곳이 일본 산업계의 발상지인 것만은 아닙니다. 센간엔의 평온한 정원과 고덴에는 외국의 요인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빛나는 주홍색의 스즈몬(錫門, 지붕의 재료인 사쓰마의 특산품 주석(朱錫)에서 유래된 이름)을 보면 1865년부터 1883년까지 주일본 영국 공사를 지낸 Harry Smith Parkes 를 떠올립니다.

스즈몬이 정원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1866년에 Parkes 공사는 센간엔에서 접대를 받았습니다. '센간엔을 방문하는 자는 적어도 3년은 머물고 싶어진다'라는 Parkes 공사의 기록을 토대로 정원의 아름다움에 많이 감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센간엔은 영국 정원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을 보이는데, 중국 정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정원의 이름 자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센간(仙巖)이라는 이름은 중국 장시성의 용호산(龍虎山)에 유래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식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인 거대한 절벽 바위에 글씨를 새겨 놓은 암각이 있습니다. 이 암각은 Parkes 공사가 머물렀던 시기에도 있었으며, 고텐 뒤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일이 매우 드물었지만, 중국에서는 드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센간엔의 암각에는 3,900 명의 인원이 3 개월 이상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위에 새겨진 글씨는? '센진간(千尋巖)'이라는 3 글자로 즉 '매우 큰 바위'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닌 듯합니다...



'센진간' 바위

Parkes 공사가 방문했을 당시, 고텐 앞의 목조 정자인 '보가쿠로'에서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보가쿠로는 원래 류큐 왕국(오키나와현에 있던 옛 왕국)으로부터 받은 건물로, 류큐 왕국은 중국(명·청)과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터라 보가쿠로의 설계에도 분명히 중국적인 특징이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시마즈가의 저택 '고텐'

저는 신발을 벗고 시마즈가의 고텐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방으로 신중히 이동하면서 Parkes 공사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 건물은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고텐에서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중정의 움푹 패인 팔각형과 고텐 앞의 우뚝 솟은 팔각형은

대조를 이루며 음양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또한 중국 이외의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알현장에 설치된 상들리에는 원내의 수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켜 사용하였는데, 메이지 시대에 런던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텐 내의 전시실에는

1891년에 센간엔을 방문한 러시아 황제(당시 황태자) 니콜라이 2 세에게 증정된 사쓰마야키 항아리의 복제품이 있었습니다.



증정의 움푹 패인 팔각형



니콜라이 2 세에게 증정된 항아리의 복제품



영국제 상들리에

Parkes 공사 외에도 영국 왕실의 관계자도 센간엔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rkes 공사의 방문으로부터 약 40년 후, 빅토리아 여왕의 손자인 Arthur of Connaught는 센간엔을 방문하여 시마즈가의 30대 당주인 시마즈 다다시계의 접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방문한 에드워드 8세(당시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1922년에 일본 투어의 일부로 센간엔에서 헤키류와 덴푸쿠 연주를 감상하였습니다. 고텐 내에는 에드워드 8세 일행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00년 전의 사진이지만 시간만 다를 뿐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원으로 돌아온 저는 기리시마로 향하는 전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센간엔의 역사적인 중요성은 차치하고, 이 정원은 일본 국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소입니다. 물론 Parkes 공사가 방문했을 당시와는 다르지만(당시에는 시로쿠마가 제공되지 않았을 것), 센간엔의 국제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이 푸르름 가득한 정원과 강물 소리, 사쿠라지마와 긴코만의 절경을 만끽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센간엔 다실의 가고시마 명물 '시로쿠마'

정원의 출구에는 고양이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걸려 있던 에마(繪馬, 소원을 빌거나 소원이 이루어진 사례로 신사나 절에 봉납하는 말 그림 액자)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이 다양한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읽지 못하는 메시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간엔에 대한 경외심이 느껴졌습니다.



고양이 신사

저는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언어와 문화의 만남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센간엔의 국제적인 매력을 보여 주는
예로 이만한 것이 또 있을까요?

지사 관련 새소식

●베트남 in 아미미 페어에 참석하였습니다(11 월 11 일)●

아미미시의 아미미 파크에서 아미미 나제 라이온스 클럽 주최에 의한 '베트남 in 아미미 페어'가 개최되어 내빈으로서 참석하여 인사말을 전하였습니다.

이날은 식전 행사로서, 개최식이 열린 후 아미미에 거주하는 베트남 주민들을 초대하여 아미미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아미미 군도 일본 반환 70 주년과 일본-베트남 외교 관계 수립 50 주년이라는 기념의 해를 맞아 지역의 고등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교류 이벤트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11 월 17 일~19 일에는 아미미와 베트남의 노래와 무용을 선보이고, 서로의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설치하며, 베트남의 식재료와 요리를 판매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페어의 개최를 계기로 상호 이해가 증진되어 앞으로의 아미미와 베트남의 교류가 한층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가고시마현 다루미즈시 다루미즈 센본 이초엔●



1200 그루 이상의 은행나무는 시즌이 되면 주변 일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다루미즈시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부인과 함께 40년 이상의 세월을 걸쳐 완성한 황금낙원으로 시즌은 예년 11월 하순~12월 상순입니다.

밤에는 조명을 비추는 시간도 있습니다.

감상 후에 따뜻한 온천에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상세 정보는 아래의 다루미즈시청 공식 web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y.tarumizu.lg.jp/kanko/koi/miryoku/event/senbonityou.html>

※ 사유지이므로 방문 시에는 예의를 지켜서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및 교통편○

가고시마현 다루미즈시 신미도 내

<https://www.google.com/maps/@31.488423,130.741765,19z?entry=ttu>

다루미즈시청에서 다루미즈 센본 이초엔까지 4.7km, 자동차로 약 10 분
다루미즈항(다루미즈 페리 발착항)에서 6.9km, 자동차로 약 12 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없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편도 약 2,000 엔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입장료○

무료(일반 개방)

가고시마 특산품 정보

●2023 가고시마 신(新) 특산품 콩쿠르 입상 상품 결정!●

2023년 10월 2일(월)에 2023 가고시마 신(新) 특산품 콩쿠르가 개최되어 식품과 공예·생활용품 2개 부문에서 각 11개의 입상 상품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개 부문에서 입상한 상품을 1개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 부문】 가고시마 맛국물 차즈케 선물 세트



가고시마시장상을 수상한 상품입니다.

흑돼지 등 가고시마의 소재를 살린 맛국물 차즈케입니다. 조리된 상품으로,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만으로도 갓 만들었을 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내용량

흑돼지 등심 돈가스 맛국물 차즈케	속 재료 300g	맛국물 200g
젓방어 절임 맛국물 차즈케	속 재료 280g	맛국물 200g
게이한(닭고기 국밥)	속 재료 270g	맛국물 200g

■ 보존 방법 · 유통 기한

냉동(-18℃ 이하) 90 일

■ 판매가

4 개 3,402 엔(세금 포함)

6 개 4,978 엔(세금 포함)

■ 문의

유니언산업 주식회사 <https://www.roppakutei.jp/>



※ 웹 페이지는 '六白亭'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예·생활용품 부문】 램프 Kagerow



가고시마현지사상을 수상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가고시마현 이치키쿠시키노시의 바다와 은행나무의 풍경을 이미지하여 색을 조합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수작업으로 정성껏 만든 편안한 색감의 램프입니다. 상품은 4 종류이며, 사이즈는 2 종류입니다.

■ 사이즈 M: W220×D 220×H 280mm
L: W220×D 220×H 560mm

■ 판매가 M: 36,300 엔(세금 포함)
L: 39,600 엔(세금 포함)

■ 문의
亀崎染工有限公司 <https://www.kamesome.co.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이번 달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도 저희 가고시마현청 메일 매거진은 가고시마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정보의 가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자 일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